

TV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웰컴 투 돈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잘났어 정말>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00 다섯 남자의 어머니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당신의 여자>
9 00 논설주간 세상보기 황준택의 눈을 떠요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삼생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신문으로 보는 세상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빨간 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40 일일드라마 <못난이 주의보>(재)
11 00 박중진외의 쾌도난마(재)	00 클래식 오디세이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수목드라마 <천명>(재)	00 주말드라마 <금나와라 특약>(재)	2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12 20 뉴스와이드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주말드라마 <금나와라 특약>(재)	00 SBS 12뉴스 30 건강클리너
1 20 명랑해결단(재)	00 KBS 걸작선 <적도의 남자>(재)		30 MBC 스포츠 2014 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한국 승리사>(재)	30 지역민방초청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특별대담
2 30 웰컴 투 돈월드(재)	00 KBS 뉴스 10 KBS 중계식 유니버설 발레단 <백조의 호수 제2부>(재)	10 퀴즈쇼 사총사(재)		00 SBS 뉴스 10 문화가중계(재)
3 40 이연경의 직언직설	40 노인, 세상이 말을 걸다(재)	00 KBS 뉴스타임 1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00 MBC 3시 뉴스 10 외우 신나는 세계여행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재)
4 50 김광현의 텅텅평평	00 KBS 오늘의 경제 10 방송개시 86주년 공시처럼 40주년 특집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엘리먼트 헌터 30 TV유치원	00 뽀뽀맨 아이조아 30 안녕 토토비	00 꿈의보서 프리즘스톤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도그래피		00 못말리는 리버와 비트파티 (재) 15 뽀뿌야 놀자(재) 30 오아시스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페레이드 10 KBC 저녁뉴스 20 내마음의 크레파스
6 00 뉴스현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신 1~2부	20 생생 TV 전국을 달린다	05 전국TOP10 가요쇼(재)
7 10 관촬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7 30 필통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때때때 20 일일드라마 <못난이 주의보>
8 20 박중진외의 쾌도난마	25 일일연속극 <지식이란 감천>	20 아구가 좋다 50 비타민	55 MBC 특별기획 <구암하문> 30 컬투의 배란디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연예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10 00 생방송 집중토론 50 허든 캘피언		00 수목 드라마 <천명>	00 수목미니시리즈 <남자가 사랑할 때>	00 드라마 스페셜 <나의 목소리가 들려>
11 00 웰컴 투 돈월드(재)	30 KBS 뉴스타임	20 이야기쇼 두드림	20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20 짝
12 10 명랑해결단(재) ①:20 이영돈PD, 논리로 풀다(재)	00 KBS 글로벌 24 40 소포츠 하이라이트 ①:00 KBS 뉴스 10 KBS 걸작 다큐(재) 50 TV동화 빨간 자전거(재)	30 스포츠 다큐(승부) 50 세상의 모든 다큐 <바다의 비행요새 항공모함 제1편>	40 MBC 뉴스24 ①:00 스포츠 다이러리 15 마블이 야망열망 스페셜	40 나이트라인 ①:10 테마스페셜

'구가의 서' 갈등 절정 치달아... 파죽지세 인기

‘장옥정’... ‘상어’ 제치고 1위... 배우·연출·대본 안벽 조합 돋보여

선과 악의 갈등이 점차 절정으로 치달는 MBC 24부작 월화 사극 '구가의 서'(극본 강은경, 연출 신우철·김정현)의 인기가 파죽지세이다.

4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구가의 서' 17회는 수도권 기준 시청률 21.0%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17.5%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동시간대 경쟁작인 SBS '장옥정, 사랑에 살다'(11.4%)와 KBS 2TV '상어'(6.7%)의 전국 기준 시청률을 합친 수준이다.



〈구가의 서〉

지난주에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월화·수목 드라마 6편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구가의 서'는 또 지난달 한국갤럽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조사에서도 선호도 4.3%로 전체 5위를 차지했다. 드라마 가운데서는 MBC 주말극 '백년의 유산'이 이은 2위다.

'구가의 서'의 인기는 일회적인 극중의 사건이나 장면 때문이 아닌, 배우와 연출, 대본의 3박자가 훌륭하게 어우러져 일궈낸 결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장점이 부각되며 논란을 찾기 어려웠다. 극중 최강치가 이야기 전개상 담여울의 신체를 접촉한 '나쁜손' 해프닝이 방송하듯 시청자와 언론 매체는 이들의 연기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이며 이슈화했다. 여기에 드라마가 절정으로 치달으며 짙어지는 멜로는 젊은 시청자의 흥미를 끌었다.

우선 '구가의 서'의 가장 큰 강점은 두 남녀 주연 배우의 매력이다. '국민 남동생' 이승기(최강치 역)와 '국민 첫사랑' 수지(담여울 역)의 조합은 드라마 방영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모범적 이미지의 이승기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반인반수(半人半獸)'로 변신하고, 풋풋하고 어린 이미지의 수지가 머리뿔보다 검과 활이 가까운 '무예교관'으로 분한다는 설정이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한국갤럽은 "'구가의 서'의 경우 20~30대 여성과 대학생에서 특히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물론 젊은 주연 배우들의 호연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연기자들의 안정감 있는 열연이 지지대가 됐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순신 장군 역의 유동근, 약당 조관용 역의 이성재, 최강치를 키운 박무술 역의 엄호성, 담여울의 아버지 역의 조성하 등이 탄탄한 연기로 이야기 흐름의 중심을 잡았다. 젊은 배우들의 깊은 연기를 끌어내는 역할 또한 이들 중견 배우의 몫이었다.

젊은 배우의 사극 출연이라는 점에서 '발연기'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막상 방송이 시작되자 단점보다는 감각적인 젊은 연기의

짧은 배우의 사극 출연이라는 점에서 '발연기'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막상 방송이 시작되자 단점보다는 감각적인 젊은 연기의

낮선 장르를 시도하면서도 이순신 장군과 조선을 노리는 일본 세력을 등장시켜 실제 역사와 허구의 적절한 결합을 추구했다.

드라마 초반에 이미 '사리진' 인물인 구월령(최진혁 분)과 윤서화(이연희·윤세아 분)를 최근 의미심장하게 재등장시키는 등 치밀한 복선도 돋보였다. 아울러 효과적인 컴퓨터그래픽(CG)의 사용으로 자칫 허무맹랑할 수 있는 설정에 실드력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방송된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이순신 장군은 '너는 무엇으로 살고 싶느냐'며 진중하게 묻고, 최강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눈물로 답한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많은 시대에 진정한 인간이 되고 싶은 '반인반수'의 간절한 울부짖음이다. /생방송

EBS

06:00 건강한 아침	09:40 깨미	15:00 꼬미기사 마이크	19:00 EBS 뉴스
06:10 한국기행	09:50 지구를 지켜라	15:10 동물짜깁기	19:20 EBS 진중기획
06:30 성공! 인생 후반전	10:10 세계대기행	15:30 바두와 친구들	19:25 지식재능
07:00 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45 마이의 모험	19:30 행복한 학교 만들기
07:15 정글북	11:20 부모	16:00 뎃뎃뎃 유치원 1~2(재)	20:20 시네마 천국
07:30 마이의 모험	(교과서 밖 여행)	16:20 피들리엄	20:50 세계대기행(네네루스 3국)
07:45 부릉! 부릉! 부릉! 부릉!	12:00 EBS 정오 뉴스	16:30 꼬미버스 타임(재)	21:30 한국기행(봉화)
08:00 뎃뎃뎃 유치원 1~2	12:10 EBS 다큐프라임	16:45 모이모이(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20 시계마을 타기	(간담심리 보고서 - 황혼의 반란)	17:00 방귀대장 뽕이(재)	(파괴소)
08:35 꼬미버스 타임	13:05 EBS 인문학 특강	17:10 시계마을 탐사특(재)	22:45 극한직업
08:50 모이모이	14:00 지식재능	17:25 부릉! 부릉! 부릉! 부릉!	23:15 다큐 10+
09:00 방귀대장 뽕이	14:05 영어유치원 오! 가비아	17:40 생방송 특목부너리 1~4	24:05 한국 영화특선(소나무)
09:15 두비두비 눈보리	14:30 척척폭죽 치킨만	18:30 곤	
09:30 피들리엄		18:45 정글북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한국사) 11:40		(화학II)
00:50 내신 6급	(수학II) 12:30 박복의 이수로 만나는 경제		
01:40 포스	(문학I) 13:00 탐스런		(생명과화학I)
02:30	(문학II) 14:00		(지구과학II)
03:20	<적분과 통계> 15:00 인터넷수능		(국어A형)
04:10	<기하와 벡터> 16:00 기술플러스		(수학I)
05:00	(수학II) 17:00 인터넷수능		(듣기B)
05:50 탐스런	(물리I) 18:00 EBS 수능특강		(국어A형)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19:00		(영어B형)
(영어특강의 기본I)	20:00		(영어A형)
(Basic Grammar)	21:00		(영어B형)
07:20 탐스런	(화학I) 22:00		(생명과화학I)
09:10	(생명과화학I) 23:00 전공적성 유형분석 영어		
10:00	(지구과학I) 23:50 지식재능		
10:50	(물리II) 23:55 배움나머사		

EBS플러스2

07:00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20 초등기말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특강
07:30 EBSe 생활영어	(사회3-1)
08:0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비 강좌	15:50
08:30 주책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16:20
09:10 TV중학	16:40
09:50	(국어①②)
10:30 중학개념 끝장내기	(수학)
11:10 TV 중학	(도덕①)
11:50 TV중학 2학년	(수학2-1)
12:30	(역사①)
13:10 TV중학 3학년	(과학3)
13:50 뽀뽀뽀	21:20
14:10 신비림 실험실	22:00
14:30 골목 초등국어 문법1(1/2)	22:40
15:10 사회가 속속!	23:20

“역할 몰입 위해 살빼는 중”

고현정, 냉혹한 교사로 변신... MBC '여왕의 교실' 12일 첫 방송

자상하게 '힐링'하기 보다는 냉혹한 '정글'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나타났다. MBC 새 수목극 '여왕의 교실'은 세상의 맨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독특한 교사와 이에 맞서는 초등학생 아이들의 분투를 다룬 드라마다.

4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에서 열린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발표회에서 연출을 맡은 이봉운 PD는 “멜로나 출생의 비밀이 없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신선한 드라마”라며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 3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하는 고현정이 이 역할을 맡았다.

고현정(사진)은 “내가 살아 썩은 시청자들이 몰입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마르게 보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대사나 눈빛만이나 아니라 몸에서 날렵함이 표현돼야 하는 만큼 살을 빼야할 것 같다”고 각오를 전했다.

드라마의 한쪽에 고현정이 있다면, 반대편에는 6학년3반 아이들이 있다. 정장한 스타 아역배우 김창희, 천보근, 김새론, 신선애, 이영유 등이 마여진의 ‘악제’에 맞서 싸우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일본 드라마가 원작인 '여왕의 교실'은 카리스마 넘치는 여교사 마여진과 이에 대항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1년에 걸친 '투쟁'을 그린다. 마여진은 찢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혹함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마녀 같은 교사'로 그려진

영화 '극본을 맡은 김원석 작가는 '원작의 마여진 선생 캐릭터에 반해서 도전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작품을 시청자가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여왕의 교실'은 이달 12일 밤 10시 첫 방송.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이루어진다. 48년생 기대치에 못 미치어 실망하는 모습이다. 60년생 경지하거나 보류 될 수도 있다. 72년생 작심한 대로 행하는 것이 좋다. 84년생 함께 관련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71, 04
丑	37년생 예상 했던 대로다. 49년생 중박 되지 않았지만 세심하게 살라 볼 일이다. 61년생 막연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라. 73년생 절호의 기회이다. 85년생 주된 골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8, 61
寅	38년생 진솔함이 생산적인 국면에 이르게 한다. 50년생 적절 한 시기의 선택과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 62년생 오해로 인한 갈등이나 의심이 해소되는 상황이다. 74년생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자. 행운의 숫자 : 31, 84
卯	39년생 의도하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존재 방식이 다르다. 51년생 대체로운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63년생 밤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 75년생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80, 16
辰	40년생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릴 수도 있다. 52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64년생 중차 대하고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76년생 다수자의 의사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57, 89
巳	41년생 꼭 막혀 있다가 서서히 소통되리라. 53년생 고민만 하지 말고 말로 해야 알아듣는다. 65년생 바탕이 빈약하니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 좋다. 77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94, 77

午	42년생 말 바꾸기를 하는 이가 보이나 알고 있어야겠다. 54년생 미행이나 탐문하려는 이가 생길 수도 있다. 66년생 소모적 이라면 한시 바빠 선회하는 것이 상책이다. 78년생 현황에 맞게 변모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96, 81
未	43년생 열심히 해 놓으면 머지않아 요긴하게 쓰이리라. 55년생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 67년생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79년생 비슷한 수준으로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행운의 숫자 : 85, 49
申	44년생 만민왕은 상대가 나타나리라. 56년생 오래 동안 쌓여 있어서 부작용이 예상된다. 68년생 확실하지 않으면 쉽게 장담하는 것이 아니다. 80년생 지나치게 내세우다 보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09, 65
酉	45년생 순간의 착각이 커다란 병폐를 낳을 수도 있다. 57년생 터놓고 논해야만 수긍하게 되리라. 69년생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81년생 협조자와 방관자가 함께 하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37, 23
戌	46년생 돈 쓸 일을 늘어놓으며 꾸짖는 이가 보인다. 58년생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70년생 내적인 면에 많은 배려를 해야 할 때다. 82년생 어중간하여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 할 수다. 행운의 숫자 : 30, 59
亥	47년생 강력한 유혹의 손길이 뻗치리라. 59년생 복이 들어오면 억지로 문을 활짝 열어 쫓겨라. 71년생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83년생 거의 완벽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44, 5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경” ☎010-9790-8237

TV 하이라이트

동명인의 연예인 뭉쳤다



황금어장 라디오 스타(MBC TV·밤 11시 20분) = 이번회는 '동명인의 연예인' 특집으로 같은 이름, 다른 인생 스토리를 소개한다. '우결' MC 겸 투미코 남편, 남자 김정민과 차세대 뷰티 멘토이자 뷰티계의 김구라, 여자 김정민이 라디오 스타를 찾는다. '입술 왕자' 이지훈과 '학교 2013'이 배출한 신예 스타 이지훈도 함께한다.

특유의 창법으로 라디오 스타 녹화장을 초도화 시킨 남자 김정민의 진짜 나이가 밝혀지고, 그가 방송 중 호랑이의 뒤뙥이를 친 사연이 소개된다. DJ보다 더 거친 입담을 자랑하는 여자 김정민이 무등경강장 야구장에서 시구 후 평평 운 이유도 밝혀진다.

'입술 왕자' 이지훈은 뺨 터지는 뮤지컬 톤 노래로 모두를 배꼽 잡게하고, 떠오르는 셋별 작은 이지훈은 군대에서 기절하게 된 무사시한 사연을 이야기한다.

두 변호사의 유쾌한 사건일지



너의 목소리가 들려(SBS TV·밤 10시) = 속물 극선전담변호사 장해성(이보연)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신비의 초능력 소년 박수하(이종성), 바른 생활 사나이 차관우(윤상현)가 만나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드라마다. 조수원씨가 연출하고 박해원씨가 극본을 썼다.

극중 장해성과 차관우는 이제 막 연수를 마친 연수원 동기이자 상반면 변호 스타일로 사사건건 부딪히는 견원지간(犬猿之間)이다. 변호사의 사명, 정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20초'만 별명답게 짧은 변론으로 재판관의 한숨을 자아내는 골치덩어리 장해성과 시구 후 평평 운 이유도 밝혀진다.

꽃따라 별따라, 양봉꾼의 삶



극한직업(EBS TV·밤 10시45분) = 한 해 생산량이 3배 달하는 아카시아 꿀은 우리나라 꿀 수확량의 80%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벌꿀의 여왕'이다. 그러나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는 고작 20여 일이다. 이때를 위해 일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 생활을 하면서 꿀을 채취하는 이동 양봉꾼. 이동 거리만 해도 무려 1만km가 넘는다.

변화무쌍한 자연의 법칙 속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동 양봉꾼들은 적자를 찾아 헤매다 적막한 산속에서 천막을 치고 새우잠을 자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꿀벌은 기온 편차와 비바람 등 주변의 모든 환경에 민감하다. 어디로 뭍지 모르는 벌 떼의 위험 속에서도 자연선 골 꿰집은 계속된다. 꿀을 찾아 길을 나서는 현대판 유목민, 이동 양봉꾼의 험난한 여정을 동행해보자.